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 사 육성” K-푸드 창업사관학교 본격 가동

- 농식품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 개최... 창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5년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방문하여 청년 식품기업 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첫 출발점으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K-푸드 창업사관학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기 K-푸드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86팀이 지원했다. 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가능성, 창업의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대면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50팀이 선발됐다. 이는 7.7대1의 경쟁률로 식품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발된 교육생은 앞으로 1년 동안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까지 제공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 이외에도 지역의 젊은 인재가 식품기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50팀을 추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여 K-푸드 산업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K-푸드는 K-컬처와 K-관광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청년 창업의 성공모델이 되어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NEXT 두쫌쿠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참여하여 본선 경쟁을 펼쳤다. 식품기업 상품담당자, 유통사 MD(상품 기획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제품의 창의성, 맛,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식품진흥원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푸드폴리스마켓(식품판매공간)에 1년간 무상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 창업성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진대회를 참관하면서 “오늘 수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시장을 만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K-푸드 창업사관학교 개요
- 2. Next 두쫌쿠 발굴 경진대회

담당 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책임자	단 장	문원탁	(044-201-2181)
		담당자	사무관	위철승	(044-201-2184)

붙임 1

K-푸드 창업사관학교 개요

- ◆ 기존 청년식품 창업패키지 사업(시제품 제작 중심)을 통합하여 '26년부터 **창업 전주기(탐색 - 창업 - 성장 - 도약)를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로 개편

□ 추진 배경

- 청년 창업기업 간담회 시, 국무총리께서 청년식품창업센터(전북 익산)의 **창업지원 확대 운영 필요성*** 언급(25.12.5, 식품진흥원)
- *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 및 지원 확대 필요
-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 → 성장 → 도약)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원 내에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26.1.)

□ K-푸드 창업사관학교 개요

- (목적)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기업 창업 활성화 및 K-푸드 세계 주역으로 육성**
- (지원대상) 식품분야 청년 예비·초기(창업 7년 이내) 창업자
- (지원규모) 총 100팀(1차 50팀 + 2차 50팀) / 710백만원
- (지원내용) 식품창업 관련 이론교육, 시제품제작, 제품개발, 컨설팅·멘토링, 마케팅, 경영 및 사업화 확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1단계(탐색, 창업)	2단계(성장)	3단계(글로벌)
- 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 지원	- 해외 대형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매칭
- 전문창업 컨설팅 및 1:1 멘토링	- 브랜드 로고 및 패키징 디자인 개발	- 국가별 맞춤형 레시피 포장재 개발 등
- BM(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고도화	- 대형마트·편의점 등 입점지원	- 글로벌 인증활동 등 및 SNS 마케팅 지원

□ 향후 계획

- 우수기업은 투자 연계, 민간 유통·수출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K-푸드 전문 창업기업으로 스케일업 후속 지원**

붙임 2

Next 두쫌쿠 발굴 경진대회

□ 경진대회 개요

- (목적) 식품분야 청년 창업 관심도 재고 및 K-푸드 우수제품 발굴
- (대상) 식품진흥원 창업 지원사업 졸업생, 창업센터 입주기업 및 타 기관 창업보육생 등 **식품분야 창업자 제품 등 창의성 높은 제품**
- (평가 방법) 식품기업 상품 담당자, 유통사 MD 등 3명이 **창의성, 맛, 디자인,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진대회 추진 경과

- 경진대회 공모(2.25~3.6), **46개 제품 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3.17. 제품 개별 경위, 제품 디자인 등), **15개 제품* 선정**
* 콩부각, 저당 고단백 떡, 닭껍질 튀김, 버터오징어, 과일 스무디맥주, 감귤칩 등
- 최종 **현장평가(4.16.)**를 통해 **우수 제품 5점 선정 예정**

□ 시상 규모 및 수상자 혜택

- 시상 규모

구 분	대상 (장관상)	최우수상 (식품진흥원 이사장상)	우수상 (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
규 모	1社	2社	2社
상 금	2,000,000원	각 1,000,000원	각 500,000원

- 수상자 혜택
 - 청년식품창업센터 **시제품 제작실 무상사용 1년**
 - 식품진흥원 전용 온·오프라인 **FoodPolis Market 입점 지원**
 - **각종 행사 또는 팝업스토어 운영 시 우선 입점권 부여**